

## 광주 '스카이 라인' 바뀐다

금남로·광주역 일대 고도제한 폐지 추진  
 영산강·광주천변 '경관지구'로 개발 제한

###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시 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되, 건축물의 층수 제한은 풀어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꾼다'  
 광주시는 시 도시계획상 처음으로 자연 환경과 도심 환경을 조화롭게 보존하기 위해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신축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한 '최고 고도지구' 중 일부를 폐지해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심

의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가 주민 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변경안을 잠정 보류함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보완해 광주시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어서 광주 도시계획상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봉산공원과 산월동 영산강변, 신창동 영산강변, 유덕동 영산강·광주천, 치평동 광주천변, 전남대·동강대·광주교육대·가톨릭신학대·조선대 등 10개소를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어있다.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신축은

3층(12m 이하)까지만 가능하며, 환경에 지해되는 골프연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신축은 물론 증축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중 영산강변과 광주천변에 인접한 산월동·신창동·유덕동·치평동 일부 지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경관과 주변의 경관을 조화시키고 동시에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천변과 시가지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한 것이다.  
 또 전남대와 조선대 등 5개 대학은 노후화된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경관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광주 도심과 주요 도로변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구에 따라 12m~20m로 제한한 고도지구 중 도심활성화 차원이나 사실상 규제가 유명무실한 25개 최고고도지구를 폐

지하는 안건도 제출됐다.  
 금남로와 광주역 일대·광남로·문화전당 주변 등의 최고고도지구는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1차 순환도로 주변과 화순방면 및 장성방면 도로 주변 등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화전당 주변과 제봉로는 도심 이전에 따른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대상이 됐으며, 1차 순환도로 주변은 도시 상징 도로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역 인근과 장성·화순 등 외곽 지역 방항 도로 주변, 광산간 도로 일대 등은 도로쪽에 의해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중복규제가 되기 때문에 폐지 대상이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관지구 지정은 도심환경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

서 "도시계획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의견을 보류한 만큼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밤의 월드컵**

<21일>  
 포르투갈 D 멕시코  
 경향(23:00) KBS1-MBC-KBC  
 이란 D 앙골라  
 20(프지해/23:00) KBS2

<22일>  
 네덜란드 C 아르헨티나  
 프랑(20:00) KBS2-MBC-KBC  
 코트디부아르 C 세르비아  
 한(20:00) KBS1-MBC-KBC

**스코어 보드**

스위스 (1승1무) 2 G 0 (2패) 토고  
 우크라이나 (1승1패) 4 H 0 (1무1패) 시우디  
 스페인 (2승) 3 H 1 (1무1패) 튀니지

## 진흥고 무등기 우승 ▶23면



20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끝난 제13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구미전자공고를 8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광주진흥고 선수들이 박철우 감독을 행개라치며 환호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대수도론' 절대 안된다

### ① 수도권 비대화 실태와 폐해

# 면적 12%에 인구·GDP 절반 집중

(국내총생산)

공공기관 85%·100대 기업 91% 몰려  
 교통·환경비용 늘어 국가경쟁력 저하

#### ■ 수도권 집중 현황

|                        | 전국      | 수도권     | 수도권 집중도(%) |
|------------------------|---------|---------|------------|
| 인구 (천명·2003년 기준)       | 48,824  | 23,240  | 47.6       |
| 지역총생산액 (10억원·2002년 기준) | 516,647 | 251,707 | 48.7       |
| 제조업체수 (2002년 기준)       | 110,356 | 62,553  | 56.7       |
| 서비스업체수 (2002년 기준)      | 701,645 | 330,564 | 47.1       |
| 금융예금 (10억원·2003년 기준)   | 548,098 | 374,219 | 68.3       |
| 금융대출 (10억원·2003년 기준)   | 538,261 | 357,888 | 66.5       |

(자료: 건교부 국토정책국)

▲수도권 비대화 실태 = 국가균형발전 전위원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9%가 집중돼 있다.  
 또 수도권에는 공공기관의 85.4%, 4년제 대학의 40.5%, 제조업체의 56.7%, 서비스업체의 47.1%, 100대 기업의 91%가 집중돼 있다. 국민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 각종 경제활동 집단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소득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의 2001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1989년 전국 평균 대비 약 8.5배 성장한 반면, 지방은 2.2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또 2002년 국내총생산액(GDP)도 수도권이 48.7%를 차지했으며, 금융예금은 전국의 68.3%, 금융대출은 전국의 66.5%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수도권이 평균 82.7%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평균 45.7%에 머물렀다.  
 소득격차에 따라 지난 2002년 주민담세액도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인천이 부산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민간소비 지출도 서울이 1위, 인천이 3위, 경기도가 7위를 각각 차지했다. 전남은 주민담세액과 민간소비지출 모두 16위로 꼴찌에 머물렀다.  
 이처럼 수도권에 국가 경제가 집중

되면서 전국 16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역시 서울이 16위, 인천이 15위, 경기도가 13위를 차지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은 1위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지목됐다.

▲비대화에 따른 폐해 = 수도권 과밀화는 필연적으로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대는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계층간 양극화 및 소외,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광당 주택지 가격은 2003년 기준 서울 강남구가 757만 원인데 비해 강원도 화천 7만 원, 전남 영광과 경북 봉화는 각각 4만 원에 불과하다. <2면으로 계속>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제 51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축제(유치부) 공모**  
 오늘 접수 마감  
 ▶http://www.kwangju.co.kr ▶문의 : (062)220-0541

후원학원 장학 56년 역사만 자랑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전화: 062-970-0114 ▶T: 062-970-5009-9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um.ac.kr  
 ▶상담전화: 068-5051 ▶T: 0681-360-5000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정기구독: 10,000원 / 1년 100,000원 / 3년 280,000원  
 ▶광고문의: 1577-7300 FAX: 1577-4802

**호남대학교 누리효과**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우를 일으키는 나비효과처럼 호남대학교의 누리사업이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고급인재양성사업  
**피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IRI) 대학과제 선정!**

▶고급인재양성사업 선정, 연구인력보육사업 선정, 연구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보육사업 선정, 연구인력보육사업 선정, 연구인력보육사업 선정, 연구인력보육사업 선정, 연구인력보육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 연구인력개발사업 선정